

# 새로 만든 여객선, 6월말 투입

석도훼리 '군산펄호'  
군산-석도항로 운영  
스다오호 대체키로



군산과 중국 석도 노선에 '군산펄호'를 투입한다.

군산과 중국 석도 노선에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석도국제훼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군산펄호를 오는 6월말부터 투입한다.

석도국제훼리는 지난 14일 중국 산둥성 황해조선소에서 1만 9988t급 RO-RO 카페리선 군산펄(GUNSAN PEARL)호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펄호는 앞으로 의장작업과 인테리어, 시험운항을 거쳐 6월 말 인도돼 그동안 군산-석도항로를 운영했던 스텔라호를 대체하게 된다.

김상겸 석도국제훼리 사장은 "뉴씨다오호를 자매선으로 군산펄호를 건조할 수 있었다"며 "6월부터 신조선 2척이 투입돼 운항하게 돼 고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펄호는 석도국제훼리가

군산-석도 항로에 투입한 1만 9988t급 뉴씨다오호 자매선으로 뉴씨다오호 펄호와 마찬가지로 바르질라 고속엔

진 2기가 설치됐으며 평형수처리장치가 장착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인구 유입... 정현을 익산시장, 은퇴자 '연어 프로젝트' 추진 제안

익산시가 인구유입을 위한 색다른 프로젝트 추진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인구정책을 유지하며 은퇴자들을 겨냥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에 주력한다.

익산시는 정현을 시장 주재로 가진 간부회의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유

입을 유해 은퇴 후 귀향을 고민하는 노후세대들 겨냥한 '연어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은퇴자들이 희망하는 전원생활과 소득활동, 주거 등의 여건 마련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귀농·귀촌, 실버시터 조성과는 차별화를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정 시장은 "KTX익산역의 교통이점

을 최대한 살리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은퇴자들이 원하는 생활을 익산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미륵사지 석탑 준공을 계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광자원 인프라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익산시에 전해 내려오는 4가지

의 사랑이야기를 바탕으로 '고백의 도시'라는 스토리를 일러보자"고 역설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시장을 고려한 펫 산업 추진,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다양한 테마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밖에도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가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 군산시, 안보정세공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산시가 안보정세 공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2019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는 지역방위협의회다.

18일 관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 안보위협 전망' 동영상 상영 ▲군산시 통합방위 2018년 추진성과 및 2019년 추진

계획 ▲제106연대 1대대의 안전군산구현을 위한 통합방위 추진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군사적 안보영역뿐 아니라 각종 재난까지 민·관·군·경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임준 시장은 "테러, 재해 및 재난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찾아가는 새만금아카데미 특강

군산시, 20일 '국산 콩의 여왕' 함정희씨 강의

군산시가 농업, 자녀교육, 건강, 자기계발 등 여러 분야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카데미 특강을 실시한다.

올해 10회에 걸쳐 실시되는 '찾아가는 새만금아카데미'는 오는 20일 첫 번째로 '토종콩 발효식품 세계화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시작된다. 대한민국 신지식농업인 제29호이자 국산 콩의 여왕으로 불리는 함정희 대표의 강의로, 군산시 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서 함 대표는 환경, 음식물 오염으로 인한 독성물 해독력이 뛰어난 인체조직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는 토종콩과 발효토종식품을 집중 소개한다.

함 대표는 원광대 박사과정 수료 후 콩에 대한 학술 연구로 지난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노벨재단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대한민국 후보'로 인종되기도 했다.

쥐눈이콩과 마늘로 개발한 '쥐



눈이콩 마늘 청국장'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산 친환경 농산물과 콩으로 직접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 등으로 건강하고 순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영재 교육지원과장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만금 아카데미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인재양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군산시가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에 총 569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했다.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관내 157개소 어린이집에 제안업체의 사업설명회 개별업체 선택을 통해 공기청정기 569대를 설치했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연 2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설치로 나은 보육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축제 개최

23일 신영시장 공영주차장서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도시재생 축제'가 오는 23일 신영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열린다.

도시재생 축제는 주민이 공모하고 문화기획 경비재와 함께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을 기원하였다.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자 마련됐다. 이날 축제는 바이올린 연주와 통기타 라이브공연, 색소폰, 우쿨렐레 연주, 시민 노래자랑은 물론 공예무료 체험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축제 전일 신영시장 주차장 일부를 통제할 예정으로 시장 이용시민과 관광객은 중앙동 주민센터, 공설시장 등 인근 주차장이용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